

인 증 신 청 서

탐방 프로그램 해설가

프로그램명	천왕봉에 올라 세상을 보았노라!		
목 표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을 오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탐방로 주변의 풍부한 식물상, 야생동물의 흔적을 관찰하며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자연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함.		
운 영 장 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원구역내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공원인근 또는 외부)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설자안내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안내 <input type="checkbox"/> 체험형 <input type="checkbox"/>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범 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해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사문화 <input type="checkbox"/> 해안생태 <input type="checkbox"/> 갯벌사구 <input type="checkbox"/> 거점해설 <input type="checkbox"/> 자연체험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체험 <input type="checkbox"/> 자연경관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경관 <input type="checkbox"/> 해안경관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슬라이드 <input type="checkbox"/> 탐방안내소 <input type="checkbox"/> 혼합()		
운 영 대 상	<input type="checkbox"/> 초등학생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일반성인 <input type="checkbox"/> 장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소수자 <input type="checkbox"/> 가족단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운 영 시 기	<input type="checkbox"/> 봄 <input type="checkbox"/> 여름 <input type="checkbox"/> 가을 <input type="checkbox"/> 겨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없음		
운 영 인 원	20명 이내	소 요 시 간 (분)	(실내 분/실외 9시간)
활 동 장 소	천왕봉 왕복 구간		
특 성	목적지 천왕봉만을 목적으로 올라갔던 탐방객들에게 숲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준 비 물	해설주제와 관련된 각종 부교재(매회 달라짐)		
제 출 자 료	1. 인증신청서(관련서식-1) 2. 프로그램 진행개요(관련서식-2) 3. 프로그램 시나리오(관련서식-3) 4. 해설가용 참고자료(관련서식-4)		
국립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탐방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해설가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위와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자		신 청 인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인)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천왕봉에 올라 세상을 보았노라!		
목 표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을 오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탐방로 주변의 풍부한 식물상, 야생동물의 흔적을 관찰하며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자연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함.		
해설주제	수려한 자연경관의 감상과 자연관찰체험		
해설재료	루페, 구급약품, 탐방안내지도, 망원경, 무선마이크	소요시간	9:00~18:00(9시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9시간)
동기유발	1.국립공원이란?	참가자와 인사나누기 지리산국립공원 소개 일정소개 및 주의사항전달	무선마이크	30
해설주제	2.자연경관의 감상과 자연관찰체험	주요해설지점에서 자연경관 및 식물상, 야생동물의 흔적 관찰	루페	30
주제심화	3. 해설1지점	지리산국립공원 소개	탐방 안내지도	30
	4. 해설2지점	낙엽송 발 쉼터		30
	5. 해설3지점	칼바위 유래		30
	6. 해설4지점	망바위에서 전망		30
	7. 해설5지점	로타리대피소와 법계사	점심	60
	8. 해설6지점	마당바위에서 만난 기상		30
	9. 해설7지점	구상나무 숲 삼림욕체험		60
	10.해설8지점	천왕봉 자연경관해설	망원경	60
	11.해설9지점	삶의 터전 흔적 열 보기		30
정 리	12.해설10지점	탐방 종착지 순두류에서		30
마 무 리	13.마무리 및 평가	평가서 작성 및 인사	평가서	30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왕봉에 올라 세상을 보았노라!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국립공원이란?	<p>★ 참가자와 인사나누기</p> <p>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 국립공원 중산리 자연환경안내원인 000입니다.</p> <p>참가자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등등 서로 인사나누기</p> <p>오늘 천왕봉 자연경관 해설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연해설프로그램은 자연을 방문한 여러분에게 수려한 자연경관의 감상과 자연관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자연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느껴봄으로써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이유를 공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p> <p>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지리산 국립공원 소개)</p> <p>★ 해설 1지점: 지리산 국립공원 소개</p> <p>매표소에서 탐방로 입구까지 설치되어 있는 해설판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p> <p>※ 해설판 지리산 국립공원</p> <p>지리산은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신선이 내려와 살았다는 삼신산의 하나로 방장산 두류산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문수보살이 중생을 바르게 하기 위해 갖가지 다른 몸으로 나타나서 “지혜로운 의인이 많이 계시는 산”이란 뜻으로 지리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리산에서 오래 살다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p> <p>※ 해설판 국립공원이 뭐예요</p>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토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이 분포하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 그리고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우리국민들이 훼손 없이 이용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보호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이 몇 개가 있을까요?(참가자 대답)(20개)

그리고 최초로 국립공원 지정된 곳은 어디일까요?(참가자 대답)(지리산 국립공원 1967년 12월 29일 국립공원 1호로 지정)

※ 해설판 지리산 국립공원(자연자원 및 문화재)

식물은 지리산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거나 지리산에만 서식한다는 지리바꽃, 지리대사초, 지리고들빼기, 지리오갈피 등을 비롯하여 주목,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지리터리풀 등 1300여종이 있습니다.

1000이하 저지대에는 졸참나무, 굴참나무, 노각나무, 소나무 등이 살고 있고 해발 1000이상 아고산대에는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신갈나무, 사스레나무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 지리산국립공원 안내지도

지금부터 우리가 오르고자 하는 지리산이 얼마큼인지 보겠습니다. 위치는 영호남내륙지역의 경계에 자리잡고 동쪽의 천왕봉에서 서쪽의 바래봉에 이르는 45.0km의 주능선이 동서로 형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 전남 전북에 분포되어 산청 하동 함양 구례 남원 등 1개시 4개군 15개 읍면에 걸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440.485km²,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 하자면 1억 3천만평 이상으로 추정되며, 지리산 둘레는 320km 약800리로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주요 봉우리는 제일 높은 곳인 천왕봉(1915m), 중봉(1875m), 제석봉(1806m), 하봉(1781m),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 1000m이상 봉우리만해도 30여개 봉우리가 있고 칠선계곡, 백무동계곡, 중산리계곡, 대원사계곡, 피아골 등 많은 계곡이 있습니다.

★ 일정소개

	<p>지금부터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법계교를 출발하여 로타리를 거쳐 천왕봉, 다시 법계사에서 순두류까지 총거리 10.4km를 지리산에 얽힌 전설 탐방로 주변의 동식물을 관찰하면서 천왕봉정상에 올라 지리산자연경관에 흠뻑 취해서 중산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p> <p>(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몸 풀기 등 체조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함)</p> <p>★ 주의사항 전달 및 출발</p> <p>그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연으로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p> <p>이곳 국립공원의 주인 지리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참가자의 대답)</p> <p>네 자연이죠?</p> <p>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맑은 하늘 그리고 저기보이는 높은 봉우리가 천왕봉이고 그 아래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숲, 계곡물소리, 새들의 지저귀고 사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바로 자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함부로 가구를 만지거나 행동을 멋대로 하지 않듯이 자연의 손님인 우리도 예의를 갖추어야겠죠?</p> <p>“함부로 나뭇잎을 따면 될까요?”(참가자 대답)</p> <p>“다람쥐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면 될까요?”(참가자 대답)</p> <p>“국립공원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면될까요?”(참가자 대답)</p> <p>“쓰레기를 버리면 될까요?(참가자 대답)”</p> <p>자 그럼 즐겁고 행복한 자연 체험을 위하여 파이팅을 외치면서 출발해요.</p> <p>손에 손을 얹어 주세요. “파이팅” “출발”</p>
<p>2. 해설2지점</p>	<p>♠ 낙엽송</p> <p>지금 보이는 하늘높이 자라 키가 큰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며 삼나무처럼 원뿔모양으로 바늘잎이 달리지만 가을에는 잎이 떨어집니다.)</p> <p>네 낙엽송입니다. 일본잎갈나무라고도 하지요. 지리산은 6.25동란 빨치산사건 등으로 원시림을 잃었고 지리산 아래지역 일부에 자연복원을 위하여 <u>1970년대 일본으로부터 낙엽송모종을 구입하여 산 가꾸기 사업을 하였습니다.</u> 낙엽송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곧게 자라 건축자재 화목용으로</p>

사용했으나 지금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낙엽송은 특유의 성분(피톤치드)이 나와 이 나무 아래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다만 조릿대만이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 복수초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원일초, 설련화, 얼음새꽃이라고도 불리는 이 꽃은 복수초입니다. 높이는 10~30cm로 자라며. 뿌리줄기가 짧고 굵으며 흑갈색의 잔뿌리가 많이 납니다. 햇빛을 좋아하므로 다른 식물이 햇빛을 가릴 염려가 없는 이른 봄에 숲의 가장자리나 속에 피고. 강한 빛에 약한 복수초는 주로 숲속의 푸석한 낙엽위나 숲 속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줄기는 윗부분에서 갈라지며 털이 없거나. 앞은 양면에 털이 없거나 뒷면에 작은 털이 있습니다. 꽃은 노란색으로 이른 봄에 꽃을 피웁니다. 꽃받침조각은 짙은 녹색으로 여러 개이고 꽃잎은 20~30개가 수평으로 퍼지며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꽃의 꽃말은 “슬픈 추억”이라고 하네요.



♣ 금낭화(현호색과)

금낭화라고 하는 이 꽃은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 5~6월에 휘어진 줄기 끝에 주머니 모양의 납작한 붉은색 꽃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으며. 꽃의 모양이 특이하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화단에 심어 가꾸기도 합니다.



♣ 은방울꽃(백합과)

산의 바람이 잘 통하는 숲 속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여러해살이풀. 5월에 2장의 잎 사이에서 나와 비스듬히 휘어지는 꽃줄기 윗부분에 은방울 모양의 흰 꽃이 조롱조롱 매달려 밑을 보고 꽃이 핍니다. 꽃 모양이 꽃은 색 방울 같지 않나요?

♣ 조릿대

쌀을 씻을 때 이물질을 걸러내는 조리를 아시나요? (참가자 대답)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p>일명 산에서 자라는 대나무라 하여 산죽이라고 하며, 줄기를 이용하여 쌀을 씻거나, 곡식 등에서 돌이나 다른 이물질을 걸러낼 때 사용하는 조리를 만들어 사용한 것에서 조릿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p>
<p>3. 해설3지점</p>	<p>♣ 칼바위 이성계를 시해하고자하는 자들이 지리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장수를 시켜 그들을 처단하라는 명에 깊은 지리산 골을 찾아 해매든 중 바위 아래에서 모여 있는 무리들을 보고 장수가 칼을 뽑아 들어 내려치니 그 칼이 바위에 맞아 칼날이 부러지면서 날아가 쪼파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것이 현재의 칼바위입니다. 장터목 가는 길에 바위가 칼에 맞아 움푹 파인 곳을 만나시면 그곳은 홈바위라 불러주세요.</p> <p>♣ 생강나무 나뭇잎 모양이 특이하네요. 포크모양 같지요? 이 나무 이름이 무엇일까요? 손으로 잎을 살짝 문질러 냄새를 맡아 보세요 무슨 향이 나지요? (힌트: 어머니가 양념으로 쓰시는 요리 재료중 하나) 가을산을 노랗게 물들이고 이른 봄에 제일 먼저 노란꽃을 피워 본 소식을 전하는 생강나무랍니다.</p> <p>♣ 서어나무 수피를 잘 보세요. 그리고 살짝 만져보세요 울퉁불퉁! 회색에 검은색이 얼룩얼룩하고 멀리서 보면 근육미 넘치는 보디빌더처럼 보이죠. 그래서 근육나무라는 별명을 얻었죠. 영어권에서도 별명이 머슬트리랍니다. 서어나무가 많이 있는 숲을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극상림이라 부릅니다. 삼림의 생태계를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나무인 서어나무의 분포의 중심이 우리나라라는 사실 정말 반갑고 중요한 사실이죠.</p> <p>♣ 다목적위치표지판 이 하얗고 네모난 기둥은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참가자 대답) 탐방객의 안전사고에 따른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탐방로상에 평균 250~500마다 설치하여 자신이 있는 위치 및 거리를 알기 쉽게 하여 빨리 사고 장소를 알아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설치된 것입니다. 다목적</p>

	<p>표지판은 지리산 탐방로상 31개구간 199,9KM 39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p>
<p>4. 해설4지점</p>	<p>♣ 망바위 이 바위를 봐 주세요 무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마치 경계병처럼 망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이름이 망바위라 불리고 덕천강 경호강의 유유했던 물줄기가 들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오고 남쪽으로는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주변 야산의 풍광이 발아래 정답게 보입니다.</p> <p>♣ 문창대 고운 최치운선생이 법계사에 머물 때 책을 읽고 시를 짓고 명상에 잠겼던 곳입니다. “고운최선생임리지소”란 글귀가 있고 고운 최치운선생은 고운동, 쌍계사, 불일폭포, 문창대, 세이암에 자취를 남기고 시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매력중 탁트인 바위전망대에서 산들을 굽어보는 맛이란 기가 막히죠 금대, 영신대, 향적대, 묘향대, 종석대를 지리산의(5대) 여기에 만복대, 문창대를 향해 7대란이야기가 있습니다.</p>
<p>5. 해설5지점</p>	<p>♣ 체험활동: 카메라 놀이 짧은 시간에 자연을 마음에 담기위한 놀이 두 사람이 한조가 되고 그 중 한 사람이 사진사 또 한 사람은 카메라가 된다. 사진사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재미있는 장소를 찾아 카메라를 인도한다. 무언가 인상적인 것을 발견하면 카메라가 된 사람의 눈을 고정하고 찍고 싶은 것에 맞춘다. 셔터를 누른다(어깨를 가볍게 누른다든가 신호) 그 동안 카메라가 된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야죠. 다시한번 역할을 바꾸어서,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p> <p>♣ 로타리 대피소 1978년에 로타리클럽회원들에 의해 처음 지어졌고 2000년 로타리클럽이</p>

	<p>환경부에 기부, 2001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탐방객 편의제공 및 자연보호를 위해 직접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p> <p>♣ 법계사 해발 1450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절입니다. 544년 신라 진흥왕때 연기조사가 창건하였고 1308년(고려 우왕6년) 이성계에 패배한 왜군에 의해 불타 1405년(태종5년) 정신선사가 중창, 1908년 일본군에 의해 다시 소실 1981년 겨우 절다운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이절은 일본과 미묘한 관계가 있는 절로서 “법계사가 일어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일어나면 법계사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p> <p>♣ 법계사 3층석탑 보물 473호로 고려초기의 탑으로 추정. 거대한 자연석을 기단삼아 물끄러미 하계를 지켜보고 있는 삼층석탑, 어느 석탑처럼 화려함도 안정된 미감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하늘 가까이 있어 맑은 푸른빛과 때로는 지리산의 아름다운 운무와 조화되어 상큼한 눈 맛을 제공해 주는 탑입니다. 백두에서 흘러내려온 조국의 기가 일본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아 서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간직한 석탑</p>
6. 해설6지점	<p>♣ 소나무 소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생활과 함께한 나무입니다. 소나무로 집을 짓거나 솔잎과 송화가루로 음식을 만들었으며, 늘 푸른 잎은 강직한 성품을 말해줍니다. 옛날부터 솔방울을 보고 날씨를 짐작했는데, 이 같은 조상의 지혜는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죠. 솔방울의 비늘조각은 날씨에 따라 벌어지기도 하고, 굳게 닫히기도 합니다. 마른 날에는 틈이 벌어져 씨가 흩뿌려지지만, 습한 날에는 굳게 닫혀 씨를 짓지 않게 보호합니다.</p> <p>♣ 해발 1550쉼터 올라오시느라 힘드시죠. 이 전망 좋은 곳에서 잠깐 쉬어 갈까요? 저 멀리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자연을 한번 느껴보세요 울긋불긋 색깔잔치가 열렸네요. 나무들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 겨울눈 속에서 새로이 잎을 낸 푸른색의</p>

	<p>잎들이 보이 시나요? 꽃이나 잎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모양의 잎과 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모두 담고 열지 않도록 털이나 끈끈한 것이나 비늘과 같은 것으로 쌓아둔 눈을 겨울눈이라고 합니다.</p> <p>◆ 개선문 개선장군이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고 천왕봉을 거쳐 내려온 문으로서 옛날에는 큰 바위가 개선문 위에 걸쳐있었으나 현재는 굴러 떨어져 없어졌습니다. 또는 하늘을 여는 문이라 하여 개천문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p>
<p>7. 해설7지점</p>	<p>(숲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중에 하나인 삼림욕의 특성과 그 과정을 이해하고 숲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 시원한 바람 시선한 향기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잠시 동안 숨을 크게 들이쉬고 상쾌함을 느껴보는 시간)나무들은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만의 독특한 향기를 내뿜는데 주로 향기의 성분은 피톤치드나 테르펜 등입니다. 숲에 들어가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질병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삼림욕의 효과지요. 특히 구상나무, 가문비나무와 같이 바늘잎나무가 많은 곳에서 오전 10~1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p> <p>◆ 구상나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도 한라산의 꼭대기와 지리산의 노고단 제석봉등 고산지에서 자라고 있고 열매는 항상 하늘을 향해 열립니다. 소나무의 솔방울은 씨가 흩뿌려지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솔방울이 통째로 나무에서 떨어지지만 구상나무의 구과는 떨어질 때 조각조각 흩어져 떨어지므로 땅에 떨어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나무와 비슷하지만 다른 한 나무를 찾아보실까요? 이 나무의 이름은 가문비나무, 구상나무와는 잎의 모양이 조금 다르고 손에 느껴지는 감촉도 다릅니다. 또 가문비나무의 솔방울은 단단한 소나무 솔방울과 달리 매끈하고 부드럽다. 이것은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나무에서 통째로 떨어집니다.</p>

	<p>♣ 천왕샘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샘. 좋은 물인 약수에는 여덟 가지 덕이 있는데 가볍고 맑고 차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냄새가 없고 비위에 맞고 탈이 없고 여기에 초의 선사가 말한 급히 흐르거나 고여 있지 않을 것을 더한다면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지리산의 샘물은 대부분 이 조건을 갖춘 약수입니다.</p>
8. 해설8지점	<p>♣ 천왕봉에서 보는 경관 및 재미있는 이야기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리산의 정상 남한에서 제일 높고 올라갈 수 있는 봉우리 천왕봉입니다. 저기 북쪽으로 보이는 덕유산은 시작으로 가야산, 영화촬영지로 유명한 황매산, 웅석봉, 진주, 사천 와룡산, 삼천포 앞바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남해 앞바다, 금오산, 여수, 삼도봉, 왕시루봉, 노고단, 무등산, 반야봉, 만복대, 정령치, 비래봉, 지리산 주능선 등 맑은 날에는 대마도까지 보인다는 전망제일인 곳입니다. 지리산 10경중 제1경인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천왕봉 일출도 여기서 맞이할 수 있죠. 1년 중 일출을 볼 수 있는 맑은 날은 약70일 정도이고 대부분은 봄, 가을인데 산불방지기간에 일출보기가 아주 힘들습니다. 그럼 천왕봉아래 세상을 보았으니 지리산 깊은 계곡의 재미있는 설화와 함께 찾아볼까요?</p> <p>♣ 백무동 계곡 옛날 천신의 딸 마고가 지리산에 내려 왔다 반야도사와 결혼해 딸 백 명을 낳아 무당으로 길러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대 무당 백 명이 살던 곳이라는 전설을 가진 계곡입니다.</p> <p>♣ 칠선계곡과 자연휴식년제(99년 1월1일~2005년12월31일) 선녀탕 칠선폭포 대륙폭포 등 빼어난 정취와 풍부한 자연자원들로 지리산 계곡 중 단연 1위로 꼽히는 곳입니다. 자연휴식년제는 1991년1월1일부터 1993년12월31일까지 3년 동안에 걸쳐 시행된 지리산 등 전국 명산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현지실태조사에 따라 199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칠선계곡은 99년1월1일부터 휴식기간에 들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사람이 찾지 않는 자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튼튼해지고 야생동물들의 낙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휴식년제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지정 되었습니다.</p>

♣ **지리산 성모사 흔적 찾아보기**

신라 26대 진평왕때는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의 3대 고승이 불법을 펴 신라불교의 전성기였으며 화랑도가 성행하여 국력이 뻗어나갈 시기 진평왕은 화랑을 이끌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심신을 연마했고 그때 지리산에서 자란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름이 마야라 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야와 살다 낳은 딸이 선덕인데 왕위를 물려주었죠. 지리산 성모사는 진평이 부인 마야를 위해 지리산 꼭대기에 지은 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터의 흔적만 조금 볼 수 있습니다.

♣ **자연 체험놀이 : 자연과 천왕봉 탐방에서 느낀 감동을 표현**

나에게 편지쓰기 : 잠시 동안 자연과 경관을 다시 한번 감상하면서 지금까지의 이 경험만큼은 절대로 잊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생활로 되돌아갑니다 이 느낌을 금방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에서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몇 일, 몇 주일 후에는 꼭 다시 떠올리고 싶은 모든 것을 적으세요. 여러분의 편지는 비밀이니까 안심하세요. 몇 주일 후에는 다시 여러분께로 보내 드릴것입니다.

♣ **하산**

아쉽지만 감동은 가슴에 지니고 자연은 두고 쓰레기는 손에 가방에 들고 이제는 내려 갈 시간입니다. 천왕봉 안녕!

<p>9. 해설9지점</p>	<p>♣ 솥 굽는 터 여기를 보세요.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나요? 이 까만 흔적들은 무엇일까요? 손으로 만져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질 좋은 참나무 및 잣목이 많은 지리산은 솥을 굽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솥은 지리산 자락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자 훌륭한 연료, 응급약 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솥은 장 담글 때, 습기 방지제, 공기정화, 전자파 차단제, 금줄로, 먹는 것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솥을 구웠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p> <p>♣ 신선너들 옛날 도인들이 계곡에 흐드러진 돌을 가지고 바둑을 두고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며 일제 말기 38가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곳 주민들은 너들 주변에 생계수단으로 인삼밭을 조성하여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6·25동란 및 빨치산 토벌작전에 의해 현재 두류동으로 이주하여 현재 거주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이곳은 탐방로가 아니므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p>
<p>10. 해설10지점</p>	<p>♣ 순두류 드디어 여기가 오늘 탐방의 끝 지점입니다. 참가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곳의 지명은 순두류라 하고 해발 820고지, 경사10도정도로 전개된 완만한 3만 여평의 평지를 말합니다. 이름그대로 두류산이 순하게 흘러서 평원을 이룬 곳인데 사방을 가파른 연릉이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는 특이한 지세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선너들가 함께 빨치산 토벌작전의 본거지로서 역할을 하였고 주민들이 살았던 자리에는 현재 경상남도 자연학습원을 열어 청소년의 자연체험활동, 수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자연학습원의 동. 식물 자연사박물관관람을 통해 지리산생태계의 소중함 인식)</p>
<p>마무리 및 평가</p>	<p>★ 마무리 및 평가 이 프로그램을 같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상만을 향한 등산에서 벗어나 자연해설을 통해 식물의 이름, 명소의 유래,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과 사람의 삶이 따로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자연과의 만남이 바쁜 우리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스승임을 느낄 수 있었</p>

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리산에서 느꼈던 감동들을 잘 간직하셔서 지리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저희 국립공원 직원들도 아름다운 지리산 국립공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평가는 참가자 각자 평가서를 작성하고 느낀 점, 해설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느낌나누기시간을 가졌다. 진행자에게는 프로그램진행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참석자에게는 보고 느낀 것을 말함으로써 더 오래 기억에 남길 수 있고 서로의 느낌을 나눌 수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느낌 나눔의 시간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